

고흥 우주센터 기공식 열려

세계 13번째 위성 발사장 보유로 우주기술 자립기반 다져



우주 한국의 초석이 될 우주센터 기공식이 지난 8월 8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도 우주센터 건설부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고건 국무총리와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 박태영 전남도지사 등 정부 관계자와 박상천 의원 및 지역주민 700여명이 참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주센터 기공식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하여 “우주기술은 우리 나라가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주센터를 비롯한 우주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였다.

고건 국무총리도 치사를 통해 “우주센터 건설은 우주기술자립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고흥 우주센터는 총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입해 150만 평의 시설부지에 로켓발사대, 발사임무 통제시설, 조립 및 시험시설, 추진기관 시험시설, 우주체험관, 프레스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며, 여수 돌산도와 제주 남제주군 등 2곳에 위성의 궤적을 따라 잡는 추적소가 설치된다.

2005년 고흥 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우리 나라는 세계 13

번째로 위성발사장을 보유하는 국가가 되며, 고흥 우주센터를 통하여 위성의 자력발사 및 우주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시설 기반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우주기술의 자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액체추진로켓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데 이어 이보다 수준 높은 최초의 국산 위성발사체 KSLV-1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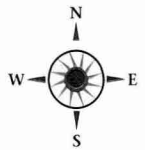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에는 100kg급 저궤도 위성인 과학기술위성 2호 개발에도 본격 착수했다.

KSR-Ⅲ가 비록 초보수준의 위성발사체라고는 하지만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일단 우리 나라가 위성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본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했고 위성제작 기술은 일부 초정밀 탑재체를 제외하고 그 동안 쏘아 올린 7기의 위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된다.

또 그 동안 발사된 과학기술 위성인 우리별 1·2·3호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 그리고 통신위성인 무궁화 1·2·3호 등 7기 외에 다음달 하순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본체가 제작된 과학기술위성 1호까지 러시아에서 발사돼 궤도에 오르게 된다.

과학기술위성 2호는 KSLV-1에 실려 2005년 말 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위성과 발사체, 위성발사장 등 항공 우주기술의 요체인 이들 3요소가 우리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우주센터의 활용범위와 파급 효과는 적지 않다. 우선 위성 자력발사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첫째로 이를 통해 세계 위성발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또 2015년까지 쏘아 올릴 9기의 위성을 자체 발사할 경우 발사에 소요되는 비용만 기당 약 113억원씩 모두 1천20억원 가량의 외화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성능 위성 발사체의 엔진 연구·시험과 관련 유도 제어기술 연구가 가능해지며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8회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

「새로운 안보위협과 해군의 역할」을 주제로



해군 은 8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등 7개국의 안보전문가 및 해양관련 학자 등과 국내·외 각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국제 해양력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해군과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한국 해로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안보위협과 해군의 역할」이라는 주제하에 4개 분과로 나누어 제1분과 「21세기 신국제질서와 해양안보」, 제2분과 「새로운 안보위협과 해양문제」, 제3분과 「아·태지역 국가의 해군정책」, 제4분과 「새로운 안보위협하에서 한국 해군의 과제」라는 주제를 놓고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5일 문정일 해군 참모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우식 연세대 총장의 축사, 조영길 국방부장관의 격려사에 이어 라포르트(Leon J. LaPorte) 한·미 연합사령관이 기조연설을, 6일에는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 강연을 하였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바다는 인류의 생존

과 번영의 터전이었으며 자원의 마지막 보고로, 세계 각국은 해양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해양자원 확보 및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서영유권과 해상교통로 등 해양이익 보호를 위해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해양이익을 둘러싼 국가간의 분쟁과 새로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양협력 증진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은 물론 아태지역 국가간 해양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과별 발표와 토의에는 백진현 서울대 교수, 김달중 연세대 교수, 정종욱 아주대 교수 등과 토머스 허쉬펠드(Thomas Hirschfeld) 미국 해군연구소 연구위원, 지 가오징(Ji Guoxing) 중국 상해항태평양연구소 부소장, 아키토모(Kazumine Akimoto) 일본 해양연구소 연구위원, 바즈하노프(E. Bazhanov) 러시아 외교대학원 부원장 등 국내·외 7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21세기 해양에서 예상되는 새로운 안보위협 문제에 대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내 국가간 해양협력 증진과 해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89년 시작해 격년제로 개최되어 올해로 제8회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내 국가간 해양협력과 해양력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 및 발전방향 등을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한 해양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하고, 한국 해양력의 당면과제를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